

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, 폭염 속 농업인 건강 챙긴다

▲ 오공환 기자 | ⓒ 승인 2026.08.11 16:22 | □ 호수 1072

여성농업인에 작업모·냉감타월 등 100만 원 상당 전달
영농철 온열질환 예방하고 안전한 농작업에 힘 보태



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(지사장 조정옥)가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농작업에 나서는 농업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폭염 예방용품을 지원했다.

영주봉화지사는 11일 지사장실에서 (사)한국여성농업인영주시연합회에 작업모와 냉감타월 등 100만 원 상당의 무더위 예방용품을 전달했다.

이번 지원은 영농철 야외에서 장시간 무더위에 노출되는 농업인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안전한 영농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.

전달한 작업모와 냉감타월은 농작업 현장에서 햇볕을 가리고 체온을 낮추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물품이다. 여성농업인영주시연합회를 거쳐 농업인들에게 전달해 무더위 속 농작업에 활용할 예정이다.

조정옥 지사장은 “농업인들이 무더위 속에서도 안전하게 영농활동을 이어가는 데 이번 물품이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란다”며 “앞으로도 농업인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살펴 현장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이어가겠다”고 말했다.



오공환 기자 okh7303@hanmail.net